

의학사서의 직능개발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학도서실

이 수 정

A Study on the Staff Development Program of Medical Librari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 Ilsan Hospital Medical Library, Ilsan, Korea

Su Jung Le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increasing discussion and aspiration on subject librarians in Korea. 'Subject librarian certificati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existence of library as well as the sense of librarian's pride. The KMLA (the Korean Medical Librarian Association) has been recognized as the institution which has produced medical subject librarian from 2003, currently the 4th medical librarian were produced in 2010. Furthermore, the KMLA is about to evaluate the nationally authorized qualification achievement to assert the medical librarian certificate. Accordingly, medical librarian certification needs to set up the basis on the certificate and also provide the diverse staff development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and capability.

Key Words: Subject specialist, Subject specialist promotion, Subject specialist education, Medical librairan, DACUM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한국에 많은 도서관과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폐쇄적 정보 이용 환경에서 개방된 정보 이용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를 도서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더 현명해지는 이용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기가 버거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한의도협) 소속 의학도서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의도협 및 회원 기관들은 구글 등의 포털 업체에 이용자를 되찾아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한의도협을 중심으로 이용자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회원 기관 소속 사서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 중 가장 큰 성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의학사서”라는 주제전문사서제도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을 갖게 되고 사서는 전문가로서 긍지를 높이는 중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주제전문사서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 문헌정보학의 특성상 주제전문사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학부에 위치한 전공과 이미 배출된 기존 일반사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문헌 발표로만 주제전문사서제도 필요성이 표현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의도협은 이제 더 이상 문헌 속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현장에 반영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갖고 다른 주제 분야 도서관보다 앞서서 “의학사서” 주제전문사서제도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2010년 현재 제4회 “의학사서” 주제전문사서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한의도협의 노력과 회원 기관의 적극적 동참이 만들어 낸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제4회 “의학사서”를 배출하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제도를 정착하고 시행하고자 앞만 보고 달려 왔다면 이제는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나, 향후 개발해야 하는 점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주제전문사서 인력수급 전망 및 제도화 방안 연구(한국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및 “주제전문사서 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삼아 한의도협의 “의학사서” 제도를 분석하여 주제전문사서의 전문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의학사서”로서 Career 육성에 영향력을 파악함과 더불어 앞으로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국내 주제전문사서제도 현황

1960년대부터 논의를 시작한 주제전문사서는 효과적인 주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간에서 시작되었다. 정보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다방면의 기회를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구성되고 있고, 넘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지식을 찾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접근 가능하며, 지식에 대한 요구도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과연 이용자가 찾은 정보가 진정 이용자 가 원하고 찾고자 한 정보였는지,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도서관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서들의 주제전문성 강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도서관에 종사하는 현장사서들은 인터넷에서 검색된 자료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현실에서 주제전문사서 논의는 도서관 생존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주제전문사서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주제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주제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이라 사공 철 등 편¹ 명기하고 있다.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재영²은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련기관, 단체 및 협회, 학계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남영준과 허운순³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 방안으로 주제전문 관련 교과목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동열⁴은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부과정의 문현정보학 전공자들을 초급주제사서로 양성하는 방안과 문현정보학계와 도서관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도서관 학계,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주제와 관련한 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관 학계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사도협 연구보고서⁵에 따르면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용어로 주제사서, 전문주제사서, 주제서지가, 참고서지가, 서지가, 주제영역전문가, 전문가, 교수사서, 리에종사서, 연계사서, 정보전문사서, 정보전문가, 주제지원담당자, 주제컨설턴트, 연구지원사서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다양한 환경 상황과, 다양한 명칭 사용은 앞으로 발전적인 주제전문사서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된 명칭과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과연 주제전문사서 채용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을 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한사도협 연구보고서⁵에서 제시한 다양한 표를 보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표 1~3을 살펴보면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특별히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추어 인력 배치를 하여 운영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운영의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

표 1. 주제전문사서 확보 여부

주제전문사서 확보여부	비율
있다.	(67.24%)
없다.	(32.76%)

표 2.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분야

주제전문사서 확보여부	비율
인문과학	(28.57%)
사회과학	(28.57%)
자연과학	(26.37%)
구분되어 있지 않다.	(1.10%)
기타	(15.39%)

표 3. 주제전문사서 확보(배치) 방법

주제전문사서 확보(배치) 방법	비율
도서관 근무경력	(15.38%)
인사순번제	(19.23%)
스스로 지원	(9.62%)
신규채용	(5.77%)
특별한 기준이 없다.	(48.08%)
기타	(1.92%)

표 4. 주제전문사서 채용 계획

주제전문사서 채용 계획여부	비율
있다.	(46.55%)
없다.	(53.45%)

표 5. 채용이 필요한 주제분야

채용이 시급한 주제분야	비율
인문과학	(13.16%)
사회과학	(21.93%)
자연과학	(42.98%)
법학	(10.35%)
의학	(6.14%)
음악 등의 예술	(0.88%)
기타	(4.56%)

표 6.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자료(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수집·선정 및 균형있는 장서관리와 개발(제본관리, 자료의 위탁 등) • 분류, 편목, 색인 및 초록 등을 작성하는 서지통정 기능 • 문헌조사, 서지의 편찬 및 독서목록의 준비 • 주제별 문헌에 대한 안내자료, 정보자료, 서지안내서 등에 대한 도서관에서의 서비스와 배포 • 신착자료목록의 작성 및 배포, 신간책자에 대한 정보안내 • 정보자원의 개발·관리·평가
참고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의 관계 정립: 접촉 강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유지 및 증진 • 자료이용 상담 및 정보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사항 해결 및 이용자 질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 연구(특정 주제관련 질문의 해결과 새로운 답변 방법) • 기술부 직원들과의 협조를 통한 정보제공 • 장서정책과 함께 e-자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교수진의 요청에 의한 문헌조사 및 교수진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 더 많은 전문주제지식 습득 및 정보기술의 훈련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정보제공 •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비용효율적인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관리 • 목차속보 복사서비스, 최신정보의 선택적 배포서비스(SDI)
강의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과 이용자교육(도서관 부각, 전자도서관 이용 교육 및 강좌 또는 세미나 개최 등) •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도서관 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계획, 서고배치, 서비스운영 참여 • 도서관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와 계획에 참여 • 주제열람실 운영관리 기능 • 대외적으로 주제전문사서는 도서관의 문제 해결자적 기능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전문대학원과 대학에 최소한 1명 이상과의 긴밀하고도 정규적인 접촉 유지 • 교수진으로부터 도서관 이용교육, 강의 문제에 대한 협력 획득 • 유관기관과의 연계 기능: 주제전문분야의 전문대학원, 대학, 학과와의 공적 관계 수립

는 것처럼 주제전문사서의 효용성을 알지 못한 채 주제전문사서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활용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주제분야에서 주제전문사서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제전문사서 자질 분석

주제전문사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주제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사서를 훈련시켜 배치시키는 것이다.

미국 전문도서관협회 SLA (2005)는 21세기 주제

표 7.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사서의 역할	빈도	백분율(%)
자료선정	34	30.1
장서관리	31	26.5
대출업무	15	12.8
정리업무	13	11.1
연속간행물업무	11	9.4
반납업무	9	7.7
수서업무	4	3.4
합계	117	100.0

전문사서의 역할을 표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재영²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은 표 7과 같다.

즉,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는 심화된

주제 분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서비스를 포함하여 일반사서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진행함으로 고유의 전문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전문사서는 각 도서관별 상황에 따른 역할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격 및 자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고, 강제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준민⁶은 주제전문사서 자격에 대해 주제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특정 주제영역의 정보흐름과 정보생산에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즉, 특정 주제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2차 정보에 민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2차 정보를 생산·가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보전문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재⁷는 주제전문사서가 학문분야의 학사 이상의 주제배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학도서관의 현 단계를 고려할 때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도서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되며, 주제서비스 적성이 있는 이, 둘째, 사서자격증(2급 이상 정사서 이상)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 셋째, 문헌정보학 학사로서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타 주제분야 이용자 연구 또는 장서·서지 연구를 수행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라고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 여러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주제전문사서가 진정 갖추어야 할 자질은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보다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능력과 이용자 및 구성원과의 협동 작업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제 지식보다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전달 방법 등 주제분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커뮤

니케이션능력, 협력활동능력, IT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능력, 서비스마인드 등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외국의 경우 석사 이상의 자질을 요구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학부에 위치하여 있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위치이지만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계속적 교육과 현장실습이 동반된다면 주제분야에 대한 학문적 결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도협 의학사서제도 운영

1. 의학사서제도 운영 현황

한의도협은 2003년 의학사서 제도에 관하여 전문가들과 토론 및 시장 조사를 시작하여 외국의 사례보고 등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의학사서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순차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2006년 제1회 의학사서 자격자 배출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제4회 의학사서 자격자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의학도서관이라는 특성화된 도서관에서 의학분야에 대한 주제전문사서는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의학용어, 의학과 분류 등과 같은 개념을 정립하여야 의학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 예를 들어 의과생, 전공의, 전문의와 같이 이용자 그룹에 맞추어 이용자 정보요구도에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자연과학의 특성상 빠른 정보환경의 변화는 의료현장의 조직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서의 도움 없이도 다양하게 제공되는 컨텐츠를 활용하여 충분히 도서관의 역할이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의학사서라는 주제전문사서는 인터넷과 컨텐츠 발달로 인하여 도서관 방문을 하지 않는 이용자를 웹 환경에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사서직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더불어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여주는 역할도 기대하게 된다.

2. 의학사서제도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협력 모형

현실적으로 의학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도서관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듬고 보태어 의학사서 주제전문사서 양성의 밑거름을 형성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도협은 선도적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과 향후 우리나라의 사서직에 대한 존재감 부각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기라 감히 말할 수 있다.

2010년 제4회 의학사서를 배출하게 되었고, 의학사서 주제전문사서 자격에 대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이에 대한 결실로 2010년 12월 1일 현재 1차 민간자격등록을 성취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의학사서 자격제도에 대하여 근거를 공고히 하고, 운영의 폭을 확대하여 위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재정비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한국사대도협⁵은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 4가지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살펴보자.

첫째,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심에 맞추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교육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전문도서관 협회를 비롯한 단체 및 학계에서 단계별 과정의 제공 및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정기간마다 자

격을 갱신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학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현장중심적이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교육제공을 위해 관련단체나 협회, 그리고 도서관 현장과 연계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문적 이론 및 속성에 대한 주제관련지식과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문헌정보학적 지식, 학문주제별 특성이 반영된 교재가 개발되어져야 한다.

향후 더욱 발전적인 의학사서자격제도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진행을 하여 근거중심적이고, 튼튼한 자격제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3. 효과적인 의학사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의도협에서는 의학사서 제도 평가표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학사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학사서 평가 구성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협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진행을 하는 항목이 바로 교육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좀 더 질적 상승을 위한 의학사서제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⁸의 문헌에서 보고된 주제전문사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은 의학사서 자격을 원하는 현장사서들에게도 자기계발의 동기가 되겠지만, 협회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진정 필요가 치가 있는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조⁸의 문헌에서 주장하는 DACUM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표 8. 6개의 주제전문사서 교육 코스

대항목	소항목
1. 장서개발론	5. 주제별 출판, 유통, 6. 장서평가, 7. 자료수집 및 분석능력, 13. 정보자료 선택과 이해, 14. 수서실무, 17. 저작권, 20. 정보자원협력론, 37. 자료선택도구
4. 주제별 정보원	16. 인터넷정보원, 18. 웹DB 활용능력, 19. 디지털정보활용능력, 23. 주제별참고정보원, 86. 주제관련 서지도구활용법
22. 정보봉사론	42. 참고서비스분류능력, 43. 웹게시판 활용능력, 63. 도서관정보활용법, 40. 최신연구동향
26. 정보조직론	27. MARC작성법, 28. 색인·초록작성법, 36. 시소러스, 39. 해제작성능력
24. 정보검색론	11. 정보검색능력, 38. 주제분석능력, 46. 키워드파악능력
2. 이용자연구	29. 데이터작성능력, 52. 요구분석·정리능력, 71. 도서관 환경분석, 73. 지역사회연구
50. 도서관마케팅	80. 시장조사능력, 82. 홍보자료작성법, 83. 고객관리프로그램관리, 84. 문화프로그램운영론, 85. 행사운용능력
32. 상담학	9. 상담수행능력, 10. 질문지작성능력, 21. 교섭능력, 34. 상담기법, 51. 의사소통능력, 64. 커뮤니케이션능력, 81. 커뮤니케이션론
55. 도서관이용자교육	56. 교수법, 57. 교과과정개발론, 58. 프로그램개발능력, 60. 교육매체론, 61. 교안작성능력, 62. 작문능력, 65. 교육공학, 66. 웹디자인시술, 67. 미디어매체활용능력, 68. 교육프로그램평가
주제연구	33. 주제개론지식, 40. 최신연구동향
31. 연구방법론	44. 논문작성법, 45. 논문주제파악능력, 62. 작문능력, 87. 연구능력, 88. 보고서작성능력
69. 도서관경영론	70. 도서관정책기획, 72. 정책개발능력, 76. 도서관예산기획, 77. 재무관리, 78. 회계관리프로그램활용, 79. 예산편성능력
3. 도서관통계	8. 통계분석능력, 48. 통계학, 49. 통계활용능력
도서관업무 일반	41. 도서관업무지식, 47. 라이브러리2.0
업무능력	53. 기획능력, 54. 업무추진력, 74. 행정능력
직무능력	12. 외국어해독능력, 30. 워드작성능력, 59. 컴퓨터활용능력, 75. 정보통신활용능력

노동조⁸는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을 사용하여 직무모형을 개발하였다. 데이컴법은 분석대상 직종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데이컴 전문가가 주도하는 2~3일동안 집중적 워크숍을 통하여 해당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모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직무분석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기능, 지식, 능력, 책임,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 등을 밝혀 기술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데이컴법이 주제전문사서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의 표 8을 살펴본다면 의학사서 자격제도를 위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리라

는 확신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은 협회 업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 교육기관의 특수 교육과정 개발 혹은 학부 교과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결 론

한의도협에서는 전문도서관 분야에서는 선도적 입장으로 의학도서관의 발전과 현장사서들의 자기 계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통합적 서지목록 작성, 상호대차 서비스, 해외도서관과의 학문 교류 등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

제4회 의학사서를 배출하는 현 시점에 현장의 사서들은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고, 지역적으로 단점을 보완한 교육을 수강하길 희

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협회에서는 의학사서자격을 국가인정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주제전문사서에게 꼭 필요한 자질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향후 의학사서자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더욱 자격 인정을 공고히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법률도서관협회에서 법률사서를 양성하고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함으로써 시민과 법률커뮤니티 및 전 세계에 법률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법률사서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며, 법률정보 분야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률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법률사서의 역량(Competencies of Law Librarianship)’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위의 모습처럼 한국에서 의학사서 자격에 관하-

여서는 한의도협을 중심으로 ‘의학사서의 역량(가칭)’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계의 교과 과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타 주제분야에서도 선도적 입장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40.
- 2) 정재영.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7;41(1):391-409.
- 3) 남영준, 허운순. 주제전문사서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5;36(3):39-64.
- 4) 정동열.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 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2;41(2):5-29.
- 5) 한국사대도협. 주제전문사서 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대도협 연구보고서, 2009;제9호.
- 6) 정준민. 대학도서관 경영의 새로운 시도. 국립대학도서관 보, 제12집; 1994;6-17.
- 7)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 1998;p279.
- 8) 노동조. 주제전문사서 인력수급 전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연구보고서, 2008.